

# Pre-Info! 알짜배기 사전정보, 프랑스가 저기 보인다!

## 알고 떠나는 프랑스 유학

제과업계에도 유학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끈 TV 드라마에서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파티시어가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제과인들의 유학에 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제과 본고장 프랑스 유학은 선진 제과기술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유학을 꿈꾸는 제과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주기 위해 프랑스에 있는 제과·제빵 분야 전문 교육기관들을 소개하는 <프랑스 학교 Infos> 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 소개에 앞서 알아둬야 할 필수정보 몇 가지를 담았다. 글\_정슬이 기자



미식의 나라 프랑스 사람들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빵 (Pain: 빵)과 프랑스 요리의 대미를 장식하는 파티스리(Pâtisserie). 건 강빵으로 각광받는 독일 빵이나 한국인의 입맛에 가까운 일본의 제과도 유명하지만 제과인을 꿈꾼다면 제과 본고장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프랑스 유학은 최고의 M.O.F로부터 전통 프랑스 제과·제빵 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뿐 아니라 피에르 에르메(Pierre Hermé)의 앙트르메나 뷔왈란의 빵 드 캉파뉴 같이 이름만 듣던 최고의 제품들을 직접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파리 센 강변의 낭만을 꿈꾸며 무작정 프랑스로 떠났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언어와 문화 장벽에 부딪혀 학교는 입학도 못하고 더듬더듬 불어 몇 마디만 배운 채 한국으로 돌아갔던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한다.

###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가?

프랑스는 '문화, 예술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첨단 산업, 자동차, 항공 산업이 발달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겹소한 옷차림의 사람들이나 거리에 즐비한 노숙자의 모습을 보면 사뭇 고개가 저어지기도 하지만 '파란 지중해에 요트 하나 띄우고 사는 게 꿈'이라는 그들의 말처럼 프랑스인들은 삶을 즐기는 여유를 더 중요시 한다. 자기 멋대로 옷을 걸쳐 입은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프랑스인들의 실용적인 면과 남의 의식하지 않는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어를 비롯한 자국의 문화에 자긍심이 높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아왔고 관광대국인 만큼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인 편이지만 최근 높은 실업률과 불법 체류 외국인의 사회 문제가 부각돼 다소 반감을 사기도 한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서울 면적의 4분의 1 밖에 안되지만 에펠탑, 샹젤리제거리 등 볼거리가 무궁무진해 해마다 2백만 명이 넘게 파리를 찾는다.

###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유학

프랑스의 교육과정의 큰 틀은 우리의 제도와 비슷하지만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편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등 상당히 복잡하다. 프랑스 학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콜(Ecole)이라 불리는 사립학교다. 대학(Université) 문학, 자연과학 등 순수학문을 위주로 다룬다면 사립학교(Ecole)는 실기 위주 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하다.

제과·제빵과 관련한 전문학교로는 ENSP와 INBP 같은 제과 또는 제과제빵 전문학교도 있고 르 꼬르동 블루, 르노뜨르 같은 종합 요리 학교의 제과·제빵 전문 교육 또한 유명하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세분화된 전문 분야만을 다루는 학교와 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단기 과정 등 다양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배우고 싶은 분야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결정한 다음 그에 맞는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 따라 학비나 교육 방식에 차이가 크고 학업 종료 후에 받는 수료증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유학을 결정할 때는 전문 기관이나 유학 경험이 있는 선배를 통해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교육은 외국인들에게 차별이 없고 학비도 거의 무료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어 능력이 밑받침 되어야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 아닌 제약이 따른다. 또 제과·제빵 관련 학교의 경우는 대학교이 아닌 사립 전문학교가 대부분이라 학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프랑스 물가 Infos

유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비용 부담이다. 프랑스, 특히 파리는 다른 유럽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편이다. 그중에서도 유학생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집세다. 파리에서 작은 원룸형태의 방은 월세가 60~70만 원을 호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유학생 살림에 허

리미를 줄라 매야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특권인 기숙사 제도나 대학식당을 이용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대형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을 활용하면 생활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알로까씨웅(Allocation)이라는 주거보조비는 외국학생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집세의 30~50%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유로화 시세가 최근 많이 내린 것도 유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2005년 8월 말 현재 1유로는 약 1천250원, 1유로면 갓 구워 군침 도는 크루아상이나 빵 오 쇼콜라(Pain au Chocolat) 하나를 갖 살 수 있는 금액이다.


프랑스에서 6개월 제과과정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알뜰양과 보통군의 유학비용을 비교하면 배움의 깊이나 질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학원과 학교를 지방에서 다닌 알뜰양에 비해 보통군은 학비 뿐 아니라 거주 등 생활비 면에서도 비용 부담이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면 지방에서 어학연수를 하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 프랑스 유학 준비

유학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믿을만한 경로를 통해 유학할 나라와 학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유학한 기술인 선배들은 아예 어린 나이에 떠나 기초부터 다지던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적어도 2년 이상은 기본 지식과 실전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기본기를 탄탄히 다졌다면 남보다 빨리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것.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자 걱정거리로 단연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불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실기 위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제과용어만 완벽하게 소화해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 큰 지장은 없다. 물론 한국에서 알파벳 아베세데(abcd)조차 모르고 무작정 떠나면 마냥 낯설기만 한 불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어려우므로 떠나기 전에 기본적인 불어 문법과 제과용어를 비롯한 기초 어휘를 미리 공부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시간에 빨리 언어를 익히려면 자신에게 맞는 어학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 외에 현지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라디오나 TV를 꾸준히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 프랑스 학교 Infos

젊은 세대들에게 유학은 더 이상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보통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정확한 정보 없이 떠났다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낭패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프랑스 유학을 결심했다면 배울 거리가 무궁무진한 만큼 제대로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 알차고 값진 유학생활을 펼쳐보자. '프랑스 학교 Infos'는 프랑스에서 제과·제빵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소개하고 프랑스 유학을 꿈꾸는 기술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담은 예정이다. 10월호에서는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국립제과학교 ENSP(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la Pâtisserie)를 소개할 예정이다. 

## 지방거주 알뜰양 VS 파리거주 보통군 유학 비용









1유로는 1,300원 기준



알뜰양



보통군

출입비	  비자 수수료 13만 원, 왕복 항공권 120만 원 + 기타 준비비용 = 총 180만 원
어학연수	  (기숙사비 100유로+생활비 300유로) × 6개월 + 지방 국립대학교 부설 어학원(800유로) = 3천200유로 (기숙사비 400유로 + 생활비 400유로) × 6개월 + 파리 소재 어학원(1천300유로) = 6천100유로
유학	  (원룸 월 300유로 + 생활비 300유로) × 6개월 + 학비 5천 유로 = 8천600유로 (원룸 월 500유로 + 생활비 400유로) × 6개월 + 학비 1만 유로 = 1만5천400유로
총합	  약 1천780만 원 (기타경비 500유로 포함) 약 3천만 원 (기타경비 500유로 포함)

## 유학 준비부터 입학까지

- D** - 적어도 6개월~1년 전
  - 목표 설정 - 자료 수집
  - 배우고 싶은 분야, 유학할 학교, 유학기간, 경제 형편 등 고려
- D** - 늦어도 떠나기 3개월 전부터는 꾸준히
  - 불어 공부 시작.
  - 문법 등 기초는 한국에서 떼고 가져!
- D** - 여유 있게 한 달 전
  - 현지 어학원 등록 → VISA 받기, 항공권 예약 등 출국 준비
  - check point** 현지의 입학허가서 없이는 비자 발급이 안 되므로 어학원 입학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 비자에 필요한 서류 여권, 입학허가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정보증 서류, 호적등본, 비자 신청서 +사진1장, 비자 발급 수수료 99유로(약 13만 원)
- D** - 출국
- D** - 6개월~1년, 자기하기 나름!
  - 현지 적응 및 연수
- D** - 학교 입학
  - 열심히 공부!

